마지막 건전지가 불을 켠다

(요나 3장 1절~10절)

1.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 옷을 입은지라
6.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7.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지막 건전지가 불을 켠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지막 건전지가 불을 켠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건전지 네 개가 들어가야 하는 손전등이 있습니다. 한 개만 들어가면 물론 켜지지 않고 두 개나 세 개가 들어가도 손전등은 켜지지 않습니다. 세 개가 들어갔다고 해서 3/4의 밝기로 켜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켜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가 신앙에서도 발견됩니다.

십자가 복음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특별히 의도하지 않더라도 성도님의 영적인 상태 혹은 믿음의 정도가 어디쯤에 와있는지 느껴집니다. 물론 성도님도 제가 어느

정도 영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공원 같은 곳을 거닐다보면 안내지도에 시설물들과 현재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대화를 통해서 성도님의 신앙적 위치가 어디이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마지막 지점이 어디인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제대로 될 때에는 약속된 증거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기쁨과 행복과 만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일 수는 없지만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지도가 그려진다는 것은 아직 도중임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도달해야 할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가 그려지는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위치가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는 바로 많은 성도님들이 머물고 있는 단계의 위치를 잘 드러내줍니다. 요나서는 전체적으로 네 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 대한 그리움을 강렬하게 유발시키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비유로 말씀드렸던 손전등의 네 번째 건전지에 대한 갈망을 촉발시키는 책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 구원을 받은 후에 벌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큰 물고기를 구원의 잠수함으로 비유했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있으면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고기에게 토해져서 육지로 나오게 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앗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알리고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요나가 도달한 니느웨에 대해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보아도 니느웨의 둘레는 96km이고 직경은 3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옛날 고대도시로 치면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 거대한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다니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흘은 필요했기에 성읍의 크기를 일수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는 하루 동안 선포를 하고 중단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의 마음상태입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을 통해 요나는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는 고백을 하는 신앙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음을 알고 하나님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심도 깨달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음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전부를 마음으로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지도 위에 존재하는 도중의 위치로써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많은 성도들도 바로 이 요나와 같은 지점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요나는 단 한 번 하나님의 멸망 예언을 하고 회개를 선포하였을 뿐입니다. 본래라면 사흘 동안 다니며 전파함으로써 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했는데 고작 하루 만에 선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는 소식이 급속도로 퍼져서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소신료와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었으며 성경공부를 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전체적으로 건전지 세 개가 들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불이 켜지기 위해 마지막 건전지를 강렬하게 갈망하는 상태를 드러내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던 이유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습니다. BC.760년경에 니느웨가 속한 앗수르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역병이 돌았습니다. 한 번만 지나가도 무서운 역병이 두 번이나 반복되자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은 멸절에 대한 공포로 위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섬기던 어떤 신도 신탁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세속 종교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니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종교생활을 하라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요나를 통해 느닷없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하신다는 예언이 선포되게 됩니다. 이미 역병을 두 차례 거치면서 멸망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살 길로 여겨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회개가 의미하는 바는 신앙적으로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삶이 멸절될 위험을 느끼게 되었고 그 좋아하는 삶을 지켜내기 위해 회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도 발견되는 신앙의 첫 번째 단계로써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좋아해서 땅에서의 삶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잘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분이심을 믿지만 그 믿음의 이유가 삶의 형통을 위해서입니다. 종교적 단계에서 다른 신을 붙잡고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의 상태입니다. 이 단계는 첫 번째 단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땅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주로 갈등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기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 비해 분명히 어느 정도 발전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좋아하는 세속의 삶을 위해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회개 또한 뇌물을 바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밉보이면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삶이 잘못될까 싶어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전히 삶에 대한 애착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역사의 섭리자이심을 적극적으로 믿으며 실제 삶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실제 삶과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별 볼일이 없고 고달프기만 한지 억울하게 여겨지고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단계의 마음상태를 보면 여전히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심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있기에 갈등하고 의심하고 불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었을 때에 요나의 마음상태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요나의 심정이 쉽게 와 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일본이 잘되고 부흥하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그들이 더욱 우리나라를 적대시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척 우울할 것이 분명합니다.
요나의 마음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이 예고 된 니느웨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자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창조주이시자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요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싫어하는 니느웨에게 살아날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니 요나의 마음이 우울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과 끝없는 갈등관계가 빚어지는 동안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행복도 기쁨도 만족도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겨납니다. 좋아함과 관심의 무게가 삶보다 하나님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삶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령 이 땅의 삶은 망하고 죽더라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삶에서의 부족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위로받고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적으로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서 이 세상의 지분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남아있기에 세상의 영향을 받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쪽으로 무게가 더 실려 있기에 흔들릴지라도 더 빠르고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는 않기에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마음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떠나지는 못합니다. 마지못해서 이를 악물고서라도 행하면 행했지 절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인한 우울함도 존재하기에 시소를 타는 것과 같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도 자기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쉽게 말해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갇혀 있으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지만, 남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의 단계가 그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단계도 그러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을 수는 없었기에 하루 동안만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때 요나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예수님의 공생애 때와 같은 마지막 단계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비록 요나가 앗수르에게 탄압받는 나라의 사람이었지만 니느웨 성을 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똑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밀착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마치 나의 마음과 뜻인 것처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쁨을 원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바로 이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세상의 대상들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를 하루에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혼과도 같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은 곧 한 여자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여자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 십자가 생활화를 반복하는 동안 신앙은 펄펄 나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단계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성경공부나 봉사와 충성이 요청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프로그램에 참석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에 하나님 외의 다른 대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를 갖게 되고 그 증거로써 세상에서 좋게 여겨지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의 대상들은 실제로 배설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라는 용도에 대해서는 배설물처럼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에 담길수록 오히려 기쁨과 만족은 방해를 받습니다. 돈은 쓸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내 마음에 들어올수록 진정한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는 방해가 됩니다. 자녀의 형통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길수록 진정한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는 방해가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담기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의 방해가 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동안 갖지 못해 안달하고 좋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실은 마음에 담기에는 모두 배설물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지 못해 안달하는 모든 좋은 가치들에 대한 생각은 마음이라는 기준에서는 절대적 가치이신 하나님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그것들에도 비로소 바른 쓰임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봉사하고 충성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라며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봉사와 충성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손전

등에 마지막 건전지까지 채워야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이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지 못하고 있는 세 번째 단계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요나서에 별명을 붙인다면 “십자가 생활화의 그리움을 노래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는 단계가 찾아오기를 갈망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셨다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면 영원한 세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공생애의 사명자가 되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토해져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의 죄악이 용서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별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도 드러납니다만 오직 십자가 생활화 하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십자가 생활화에 매진하여 나라는 인격의 손전등에 네 개의 건전지가 꽉 찬 신앙적 인격이 되어서 영원한 기쁨의 빛이 켜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지속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첫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가 지나고 기필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심으로써 신앙적 인격 상태가 손전등이 활짝 켜지는 것과 같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